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주간)

제1독서 : 에제 34,11-12,15-17

제2독서 : 고린토 I 15,20-26,28

복 음 : 마태 25, 31-46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강론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장 익 주교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은 은총의 대희년을 바로 앞두고 성서주간을 더욱 뜻있게 맞이하고자 세운 표어입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대희년 준비로 부산하지만 왠지 많은 교우들마저 그 기쁨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모로 얽매인 삶에서 진정 풀어주는 자유를 체험하게 할 무언가를 모두가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늘날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참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해인 회년을 맞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때가 차자 당신 아드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갈라 4, 4-5), 주님의 저 은총의 해가(이사 61, 2; 루가 4, 19) 개벽한지 이천년이 되었음을 다 함께 크게 기뻐하고 깊이 감사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인 아드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요한 1, 14)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세상은 들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려 오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 4, 18-19).

이 복음을 들은 우리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과 고마움을 체험하겠습니까. 그 길은 성서를 통해 이중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서 전체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난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꾸준히 성서에 깊이 맞들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또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고마움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는 ‘상하’로 난 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내 보이신 아버지 사랑의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시대는 저마다의 권리를 외치고 찾느라 자기 위주가 된 나머지 자칫 본분도 저버리고 늘 불만을 품고 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간 존엄을 되찾아 주고 지키는 값진 일도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참 열매를 맺습니다. 남을 탓하면서 내 몫을 차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나부터 회

심하고 새로워져, 오히려 남에게 사랑과 기쁨을 줌으로써 나의 참 기쁨이 샘솟는다는 진리를 성서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좌우’로 난 길이 그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몸소 보여주신 이러한 진복의 삶이라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참다운 고마움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이웃이 되어 주며 자신을 내어 주는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회사를 했습니다.”(2고린 8, 2). 그래서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6, 20, 22). 어려운 때를 맞아도 이처럼 기쁨과 고마움으로 산다면 그러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실제로 입증하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비단 성서주간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서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시편 119, 105)하며 기쁘고 고맙게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큰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우리”(1요한 3, 1)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요한 1, 16)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필립 4, 4-5)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한 목소리로 찬미가를!”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이번 주간으로 1999년도 교회력이 마감된다. 다음 주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시기를 맞게 된다. 이 대림 4주간을 지내면 드디어 새천년기를 준비하는 대회년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온다. 우리는 지난 몇년간 이 2000년 대회년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써 왔다. 이 대회년이 단지 외적인 행사치레로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적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노력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외적으로 체감되는 무언가가 적어 대회년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은총과 기쁨의 해로 고대하기보다는 무언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교황님께서는 이 2000년 대회년을 “그리스도인 생활의 저 새로운 봄”(「제삼천년기」, 18)을 여는 때

로 생각하시며,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느님께 얼굴을 돌리는 때로 삼고 싶어 하신다. “때가 차서” 시간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2000주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축하면서, 유한한 우리 존재를 무한과 영원의 생명 충만으로 이어주신 성삼위의 사랑에 감사와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미가를 불러드리며,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이시며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와 중심 목적”(「제삼천년기」, 59항)이심을 고백하는 때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대회년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미가를 불러드리는 은총의 대회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 리

아니면 댔지?

‘고 스톱’ 화투판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아니면 말고!” 이는 차례가 된 사람이 바닥에 깔린 화투작을 겨냥해서 뒤집은 패를 내리쳤는데 짝이 맞지 않을 적에 하는 말이다. 그 패를 가져오고 싶은 소망이 깨진데 대해서 허탈한 심정을 감추려고 던지는 한 마디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패거리들은 “꿈도 야무지서!”라는 말로 가볍게 되받으며 한바탕 웃고 만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정치판이 소위 ‘언론 문건’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가 하겠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언어의 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한 마디 말이 국민들에게 끼칠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다. 숨겨진 뜻이 있건 없건, 한 마디 불쑥 던져놓고는 “아니면 댔지”하는 식의 무책임한 풍조가 만연된다면 이 사회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이다. 사실 이런 식의 용공조작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 과거의 정치적인 파행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비애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 주간은 성서 주간, 성서 한 구절을 묵상하며 언어의 폭력이 없는 새 천년대를 소망해본다.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자기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회의(중앙법정)에 회부될 것이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회부될 것입니다.”(마태오 5, 22) [갑(甲)]

정직, 정품, 정량
보일러 청소/ 신용카드 환영

백 마 석 유

백동유(석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통배달
허 정 철(마태오)
이 영 선(데레사)
☎ 283-6210/225-5119

김회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고 입구
☎ (0652) 288-7717-8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궁금해요

성인과 복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인(聖人)과 복자(福者)들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뛰어난 신앙과 덕행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거나 하느님을 위해 순교한 이들로써 죽어서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하는 이들과 복자로 공경하는 분들이 성덕(聖德)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들은 전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공경 받지만 복자는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공경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에는 1839년의 기해 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때 순교한 103위의 복자가 있었으나 이분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1984년 5월 6일에 시성 되어 전세계적으로 공경 받게 되었습니다. 복자는 성인으로 선포되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십이 (1372) 김병오



성 소 모 임
오순절평화의 수녀회
일시 : 28일(주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부산 삼랑진 본원
문의 : (0527)3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욱 성
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성 소 모 임
한국 외방선교회
일시 : 11월 28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 센터 616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대상 : 외방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문의 : (02) 3673-2525

교구·제 단체 소식

1. 사회교정사목 전주 월례미사 : 1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2. 레지오단원교육 : 11월 22일(월), 신동 성당
3. 공소회장단연수 : 11월 25일(목)~26일(금), 천호 피정의 집
4. 새사제연수 : 11월 25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5. 은혜의 밤 철야기도 : 11월 26일(금) 오후 11시, 전동 성당
6. 고3 피정 : 11월 27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7. 레지오 평가회 : 11월 27일(토)~28일(주일), 천호 피정의 집
8. 혼인강좌 : 11월 28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9.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12월 2일(목), 주제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도 - 김동준 신부
10. 김혁태 신부 주소변경 : Hyoktae Peter Kim
Pfarrhaus St. Johann/ Kirchstr. 6, 79100 Freiburg i. Br (GERMANY)
Tel 001(2)-49-761-7-55-27
11. 페루 뽀마코차스 성당 사제관 전화번호 : 장상호, 김광태 신부
Tel 001(2) 51-44-77-8424
12. 아중성당 주소변경 : 덕진구 인후동 1가 910-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 기도회

일시 : 11월22일(월) 오후 7시 장소: 전동성당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수홍 성형외과

원장 김 수 홍(스테파노)
전문의

서신동 E마트 건너편
미도파 부지 맞은편

☎ (0652) 274-9494, 8100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312~3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당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성 소 피 정
성 바오로딸 수도회

주제 : 부르심을 따라서
일시 : 12월 5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집가비 : 5,000원
신청 : 12월 3일까지 바오로딸서원
(0652) 252-339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 무 실 282-9661 주임신부 이 수 현
F A X 282-9664 수 너 원 282-9662 사목회장 박 요 안

1. 부녀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부녀회→성모회로 명칭을 변경함
니다 : 성모회 총무임명 - 김복순(멜라니아) 수고하셨습니다
2. 유아세례 : 27일(토) 후 3시 * 사무실에 신청바람
3. 매월 둘째주는 반모임 주간입니다 : 반모임에 많은 참여바람
4. 모임 : ① 빈첸시오회 - 24일(수) 어머니미사 후
② 여성연합회 - 26일(금) 전 11시
③ 천사, 자비회 모후 Cu. - 28일(주일) 전 9시
④ 성우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⑤ M.E - 28일(주일) 후 7시 30분
5. 금주 전례 : 해설 - 이수원, 독서 - 노판석, 문선자
보편지향기도 - 김지원, 이선화, 봉헌 - 박기주 부부
6. 차주 전례 : 해설 - 서남석, 독서 - 유복남, 이영나
보편지향기도 - 최광식, 이정순 봉헌 - 전도열 부부
7. 금주 청소 : 인후 8, 10반
8. 차주 청소 : 인후 11, 동진 1반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 무 실 286-4929 주임신부 문 규 현
F A X 232-9029 수 너 원 284-2276 사목회장 김 영 곤

- ◎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합니다
요한 1서 7절~12절 읽습니다
- ◎ 쉬고 있는 형제와 새신자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운동 :
주제 - 620단, 누계 - 238,313단
- ◎ 성전 증, 개축을 위한 2차헌금을 매주 실시합니다
1. 세례자 특별교리 : 12월부터 *매주 수요일(후 7시미사 후)
일요일(전 9시~10시)
2. 바자회 티켓대금 정리하셨습니다?
3. 성가 연습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4. 차주 모임 : 반장회 - 28일(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5. 봉헌안내 : 금주 - 송원반, 차주 - 청산반

복 자 주임신부 286-3453 사 무 실 286-3455 주임신부 김 진 룡
F A X 288-3455 수 너 원 286-3454 사목회장 이 병 철

- ◎ 예산서 제출 : 사목회 각분과 부장, 제단체장께서는 결산서 및 2000년
도 사목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십시오.
1.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 신축헌금 신림집사 : 신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림하지 않은 세대는 빠른 시일 안에 신림바랍니다
2. 건축추진위원회 임원 임명 : 공동위원장 - 이병철(필립보), 신일균
(아오스당), 박상기(안드레아), 황길평(프란치스코), 이상인(요셉),
총무 - 구본창(젤라시오), 설계감리담당 - 이성열(에우세비오)
바자회실무담당 - 이순남(마르타), 위원회위원 - 조표훈(요셉)
육종만(안토니오), 유복규(안토니오), 라경설(안셀모), 오교성
(미카엘), 정승훈(요셉) 3. 구역미사 : 정문호(바르톨로메오)구역,
24일(수) 후 8시 한용석(바오로)형제님대 * 진북 2, 3, 4반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환우봉성제 : 26일(금) 후 2시
부터, 환우가 계신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5. 초등부 은총시작 : 오늘 교중미사 후
6. 고3피정 : 27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7. 금주 전례 : 해설 - 이정재, 독서 - 조표훈 부부, 봉헌 - 조운호 구역
성인복사 - 이병철, 구본창
8. 차주 전례 : 해설 - 유두석, 독서 - 김용수 부부, 봉헌 - 정문호 구역
성인복사 - 정동민, 이성열
9. 성당 청소 : 27일(토) 사도의 모후, 바다의 별, 밝히오리다 Pr.
10. 신축헌금 : 신림총액 - 92,135,030원, 신림세대 77세대(단체 6)
입금누계 - 15,901,500원, 신림현황 - 이병철 1000만, 라경설 200만,
조규설 50만, 조표훈 300만, 오경진 100만, 청년회 3,773,530원
입금현황 - 전영택 10만, 김경제, 전중배, 김두한, 조규설 각 5만,
유복경 3만

□ 교무금 : 1,02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37,700원
□ 교무금 : 2,020,000원 □ 2차헌금 : 288,700원

상 관 주임신부 285-6654 사 무 실 285-6652 주임신부 김 윤 섭
F A X 285-6652 수 너 원 285-6653 사목회장 최 경 립

1. 오늘 모임 : ① 성가대 - 낮미사 후
② 전례단 - 현재 해설 및 독서, 복사 담당자와
그의 관심이 있는 분
2. 금주 전례 : 해설 - 남현준(마지아)
독서 - 김덕수(사도요한), 이송자(루시아)
복사 - 강순용(마지아), 강재석(바오로)
봉헌 - 김종석(야고보)가정
3. 차주 전례 : 해설 - 김금자(수산나)
독서 - 남현준(마지아), 서춘자(세실리아)
복사 - 강덕용(베르나르도), 박기철(바오로)
봉헌 - 이옥동(가브리엘)가정
4. 차주 모임 : ① 울트라아 - 27일(토)
② 분과위원회 - 28일(주일)
5. 소공동체 미사 : 24일(수), 백암
6. 초등부 고백성사 : 27일(토)
7. 성서 두루마리 : 매주 화, 목요일 저녁미사 후
8. 예비신자 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9. 본당 청소 : 매주 토요일 오전
10. 다음 주일에는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이 있겠습니다

전 동 주임신부 281-0098 사 무 실 284-3222 주임신부 김 종 회
보좌신부 282-7245 수 너 원 282-9234 보좌신부 김 병 회
F A X 282-6232 유 치 원 284-8347 사목회장 박 순 기

- ◎ 성서 필사 : 집회서 - 구유 경배때 봉헌함
- ◎ 서학동 성전 증, 개축을 위한 2차헌금 : 28일(다음주)
- ◎ 사무실 월요일 근무합니다
1. 바느의 성모 꾸리아 : 21일(주일) 후 2시
2. 주간 모임 : ① 성화회 - 22일(월) 후 7시
② 성모회 - 23일(화) 전 11시
3. 고3 피정 : 27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12월 4일(토) 후 2시, 일치의 모후 꾸리아, 애덕의 모후 꾸리아
12월 11일(토) 후 2시, 성마리아 꼬미시움, 바느의 성모 꾸리아
장소 - 교육관
* 레지오 전 단원은 일치와 회합을 위하여 전원 참석바랍니다
5. 성심 유치원 신입생 모집 : 22일(월)~30일(화)
* 학부모 상담 후 원서 교부함
문의 284-8347
6. 본당 청소 : 27일(토) 후 4시, 은총의 마리아 Pr., 동정 모친 Pr.
7. 차주 모임 : ① 차량 축복식 - 공식미사 후
② 성 마리아 꼬미시움 - 후 2시
③ 청년회 - 후 8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2,346,840원 □ 교무금 : 2,020,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사 무 실 232-5005 주임신부 김 동 준
보좌신부 232-5002 수 너 원 232-5004 보좌신부 이 원 철
F A X 232-5003

1. 김 세실리아 수녀님 영명을 축하합니다 : 22일(월)
2. 윤영이(요한) 사목회장님 사임 :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사랑의 나눔 썰을 함께 봉헌하고 함께 이용합니다
4. 오늘 모임 : 교구성소후원회, 성령기도회 - 공식미사 후
5. 금주 모임 : 자모회 - 26일(금) 전 11시미사 후
6. 차주 모임 : 봉사부
7. 감사 헌금 : 강남초 70만, 윤장금 50만, 익명 2만 * 감사합니다
8. 성전신축 봉헌금 납부(단위 - 만원) : 신규인 800, 한동우 20
안인순 15, 박선옥 10, 이석래 5, 합계 - 8,5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2,306,970원 □ 교무금 : 3,248,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숭정이를 보냅니다.